

“불교 영어로 쉽게 소개하는 계기 될 것”

부산·울산지역 포교사들, 영어 교재 만들어 화제

“그동안 국제포교사로 활동하며 불교를 소개하는 교재가 없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현직 포교사들이 힘을 모아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교재가 영어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국제포교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두루 읽히길 바랍니다.”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국제포교사로 활동 중인 이두석(117)·박종안(147)·심지영(207) 씨는 최근 불교영어교재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를 편찬했다.

이두석 씨는 “영어 뿐만 아니라 한자와 팔리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구체적으로 실어 통역요류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일반 불자들이 불교상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는 △불(Buddha)-부처님의 일대기 △불교문화(Buddhist Culture) △법(Dharma)-불교의 교리 △승(Sangha)-불제자의 모임(사부대중)과 상가(승가)로 구성됐다.

부처님의 일대기 편은 출생부터 열반에 이르기 까지 부처님의 행적과 수행까지 세세히 담았다. 인명, 지역명과 관련한 전문 불교 용어를 모두 영어로 재번역하고 설명해 뒤 불교 공부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인다. 또한 사용한 영어 어휘도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중학생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성인을 위해서는 영어 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사용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자료와 주석을 함께 담았다. 불교 문화면에서는 사찰에서 외국인을 위해 통역을 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읽고 공부 할 수 있도록 사찰 건축과 문화에 대한 전문용어도 수록했다. 사찰장식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다루기도 했다.

이 책은 불심이 깊은 저자들이 포교를 위해 자신들의 사비와 시간을 들인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이두석 씨의 경우 현재 국제포교사회 부산·울산·경남지부 명예회장으로 이 지역에서 전무했던 국제포교를 2007년부터 개척해온 장본인이다. 공동 저자이자 박종안 씨의 경우 현재 불교영어 아카데미 원장으로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와 책의 공동 저자인 이두석, 심지영, 박종안 국제포교사(왼쪽부터).

영어학원 학원장·영문학박사 한데 모쳐

쉬운 기초영어로 편집해 <선재동자와...> 출간

봉사자 교육·외국인 대상 사찰 홍보에 활용

로 포교사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심지영 씨는 영문학 박사로서 현재 흥법사에서 국제부 활동, 법회 동시 통역 등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포교하는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 졌기에 이 책은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종안 씨는 “무역업도 병행하는데 업무차 방한한 외국인들에게는 사찰건물과 그에 관련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재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재동자와 함께 읽는 불교영어>의 저자들은 이번 책 발간과 함께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교를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공서와 연계해 부산·경남에 위치한 사찰의 안내와 홍보를 진행한다. 또 사찰 소개 열, 영문 불교관광가이드 발간, 영어 어린이법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공동저자 심지영 씨는 “국제포교사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원력에 비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더욱 많은 사찰에서 국제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佛都, 개산 맞아 환희의 야단법석

불도

통도사 10월 17~21일, 개산조당영고제

범어사 10월 17일, 법요식 및 팔관회

흥법사 10월 25일 대광명전 부처님 점안식

부산·경남의 대표사찰인 통도사, 범어사, 흥법사가 개산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370주년 개산대제’를 맞아 10월 17~21일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개산대제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기 위한 ‘개산조당영고제’가 21일 오전 8시 개산조당에서 재현된다. 문화행사로 는 9월 23일 국화장엄을 시작으로 10월 17일

체험부스, 가사배경, 어린이 수계식, 재통잔치,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및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18일에는 패블이온, 패블현공, 다문화 공연이 개최된다. 20일에는 박물관에서 패블전 특별전과 부도전에서 부도현다 의식이 진행된다. 21일에는 개산조당영고제에 이어 법요식으로 마무리된다.

범어사는 ‘1337주년 개산대제’를 맞아 10월 1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요식을 개최한다. ‘귀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요식은 ‘범어사 칠성도 귀환’을 기념해 문화시대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에 기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범어사에서 마련한 바자회 및 불교 문화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범

어사는 개산대제와 함께 ‘2015 팔관회’도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팔관회는 17일 범어사문화광장에서 ‘호국영령위령제’, ‘호국기원법회’, 대웅전에서 ‘팔관제계 수계법회’, 백회기부 순으로 진행된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개산 12주년을 맞아 10월 25일 오전 10시 대광명전에서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을 증명 법사로 개산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흥법사는 제1차 가람불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광명전 삼존불 점안식도 개최한다. 이어 광복 70년 기념 ‘통일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흥법사는 개산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는 경내 일대를 국화로 장식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 고민 ‘Talk Talk’ 털어버려요

부산 삼광사, 10월 3~4일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부산 삼광사는 청소년토크콘서트 ‘공감 스케치’를 10월 3일 지관전에서 200여 중고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삼광사 청소년 캠프 첫 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토크 콘서트는 ‘게임’, ‘이성교제’, ‘학업’ 및 ‘꿈’에 대한 토론과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패널로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 천중호 부장판사, 소아청소년 신경 정신과 박세현 박사 등이 참석했다.

게임에 집착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청소년

의 질문에 도원 스님은 “모든 것은 생각이 원인이 된다. 신구의를 잘 살피는 불교의 마음공부는 그래서 필요하다”며 “일반 공부 뿐 아니라 마음을 공부 하는 자리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현 박사는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시간을 정해두고 자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한 패널들은 자신들의 청소년기를 나누며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문제이며 고민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자산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석준(16) 학생은 “비슷한 고



부산 삼광사는 청소년 토크콘서트 ‘공감 스케치’를 10월 3일 지관전에서 200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며 “미래를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광사 청소년 캠프에서는 10월 3~4일 △희망진로체험 △문화공감 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축구로 하나 되는 佛心 한마당”

10월 4일,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 개최

출재가가 함께 하는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가 시작됐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4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 개최식을 연데 이어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양산 일대 경기장에서 대회를 진행한다. 4일 개최식에는 대회장 수불 스님,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 회장 및 범어사, 통도사, 축구사랑, 흥법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암사 등 24개 팀과 1000여 응원단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선수단의 입장으로 시작해 대회사 및 내빈들의 축사, 봉행사, 특별초청팀 부산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축구부 사인발 전달 및 시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범어사 측은 범어사의 유래를 상징하는 금뽕(金井)과 금어(金魚)를 상징하는 엠블럼을 제작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출재가가 함께하는 ‘제1회 범어사배 축구대회’에는 1000여 대중이 참가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뽐내었다.

축구대회는 경기는 10월 4일 16강전, 11일 8강전이 열렸으며 18일 4강전 및 결승전이 연이어 진행된다. 폐회식은 10월 18일 오후 3시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김천 청암사승가대학 동문회 산사마당 개최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10월 4일 제231회 정기법회를 연데 이어 가을속에 진리속에 마음열고 환희롭게 주제를 산사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에는 청암사 울원승가대학원장 지형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교무 혜명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지형 스님은 “정법을 만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 생활”이라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항상 현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풀잎농장을 경영하는 이학용(법공) 거사가 청암사 학인 스님 5명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성관음사 신도회장 취임법회 봉행

대구 성관음사(주지 일우)는 10월 6일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꽃마을이사장 수진 스님과 제주 해관정사 관호 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3대 신도회장으로는 범심 보살이 취임했다. 일

우 스님은 “부처님의 품 속에서 생활의 활력을 더하여 어떤 삶이 진실된 삶인지도 탐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생활 속 수행과 생활 속 기도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주지 일우 스님의 신간 <삶의 브릿지> 출간 기념 사인회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48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0월 1일 대성사 창립 48주년 기념법회를 경내 서림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준광 스님, 교육부장 장우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임응호 대구 동대사 신도회장 및 각 지역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화산 스님은 개회사에서 “현 총무원장 준광 스님이 초대 주지로 1967년에 대구 동성로에서 출발한 대성

사는 현재 10여 개의 신행단체와 2만여 명 천태종도가 운집한 대기람”이라며 “현시대의 분열, 대립이 화합 될때까지 기도정진이 지속되어 질 수 있는 귀의처가 되고 선행하며 더 열심히 살자”고 발원했다.

준광 스님은 “신심과 원력으로 48주년을 맞게 된 그 공덕이 법회가 되고, 중생의 복덕된 것”이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Festival of Martial Arts & Temple Culture

제 13회 화랑과 승군의 후에 전통무예대회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Festival
호국영령과 의승군 위령 수록재

2015.10.25(일) am.10:00~pm.16:00

수록재 10:00~12:00
L.M.B 심어즈의 가곡과 아리아 공연 13:00~13:40
무예대회 개최식 13:40~14:00
무예대회 14:00~16:00 선무도, 24반무예, 태권, 회전무술, 기천
특목무대 북방소리 명창사 소리무예 시연

장소	골굴사 대적광전
문의	054-744-1689 www.golgulsa.com
후원	대한불교조계종·경상북도·경주시·한국원자력환경공단 (주)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 본부·(제)불교방송·(주)다보금속·(주)대일조선